

“호남반도체 더 빨리… 광주 군공항 기능 2년안에 이전”

〈2028년 중순까지〉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회의서 “속도전 넘어 전력전” 강조
“타 기지로 임시 배치 전이라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日구마모토 못지않게 신속 집행”…관련 법령 제·개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그리고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 영남, 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휴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데 총리께서 각별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늘 말씀드리는데 것처럼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력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가 나아갈 방향과 산업대도약 전략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며 “그렇기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2면서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 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한남

상무지구는 직장소비·여수는 관광객…‘상권 살렸다’

KB금융, ‘배후수요형’ vs ‘자본전이형’ 분석
런치 붐업·14~17시 낙수효과 등 패턴 주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표하는 두 상권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상무지구가 공공기관과 기업, 의료시설 등 탄탄한 배후수요를 기반으로 고정적인 소비를 끌어들이고 있다면, 여수 해양공원은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따라 주변 상권으로 소비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단순히 유동인구의 규모가 아니라 ‘어떤 소비층을 확보하고 어떻게 소비를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KB금융그룹은 ‘2026 KB상권 활성화 인사이트’를 발간하고 호남권 대표 상권으로 광주 상무지구와 여수 밤바다를 꼽고 각 상권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성장 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상무지구는 ‘배후수요형 상권’의 대표 사례다. 행정·금융·의료 분야 직장인이 밀집한 데다 대기업과 공공인프라가 배후에 자리하면서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주중에는 직장인 중심의 업무·회식 수요가, 주말에는 쇼핑과 문화·여가 수요가 이어지면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소비가 발생하는 구조다.

특히 상무지구의 소비력은 단순한 유동인구를 넘어선다. 상권의 점포당 구매력 회원 지수는 13.8로 광주 전체 상권보다 5.8p 높았으며, 1인당 평균결제 금액도 12만4000원으로 광주 전체보다

4만4000원 많았다. 법인카드 매출 비중 역시 광주에서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밀집하면서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소비층이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간대별 소비에서도 상무지구의 특성이 드러난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행정·금융 직장인이 집중되는 이른바 ‘런치 붐업’ 현상이 나타나며 가성비 식음료와 카페 업종의 매출 밀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말에는 인근 의료·대형 유통시설·호텔 등으로 목적형 방문객이 유입되면서 소비층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여수 해양공원은 외부에서 들어온 관광객의 소비가 주변으로 번지는 ‘자본전이형’ 상권으로 주목받았다. 이순신광장과 종포 해양공원, 중앙시장 등 주요 관광·상업 공간 사이에서 관광객의 이동이 이어지며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주변 상권까지 소비가 확산되는 구조다.

실제 방문객들은 이순신광장 인근의 로컬 맛집과 디저트 등을 찾은 뒤 저녁 시간대가 되면 종포 해양공원의 남만포차거리와 해산물 전문점 등으로 이동하는 소비 패턴을 보였다. 주중에는 현지인 중심의 소비가 이뤄지지만 주말과 휴가철, 축제 시즌에는 외부 관광객이 몰리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고활성’ 상권으로 분석됐다.

▶2면으로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양부남 “전남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을”

통합 특별법 개정안 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사천)이 전남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통합 특별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관련기사 8면

양부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전남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권과 자치권을 전남 22개 시·군 수준으로 보완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군과는 달리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면 행정서비스 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시로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이 자연스레 이양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초대석



서영국 국제 법제사법위원장
“약자의 눈물·억울함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 펼쳐겠다”

초대석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첫 통합의회 성공의 길 반드시 열겠다”

지금 이 사람



고잉메리호 최예진 활동가
“웃자고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됐다”

남도 예술인



정일행 극단 쟁이 대표
“관객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죠”

2026.08 vol. 159 창간 13주년 특집호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여수 송도
바람에 기대어 역사를 만든다



광주공항 활주로에 들어설 반도체 도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프로젝트’가 움직인다



커버스토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성공…대한민국 균형발전
새역사 열겠다”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연관·협력기업 유치
교통 대전환·‘올타’·시 플랫폼 등 자율주행 메카 조성